

# 팬플룻 12주 완성

丹 夜(김병의)



## 소개글

팬플룻을 배우면서 이렇다할 교재가 없기도 하거니와 선배들이 그랬듯이 정석에 가까운 강좌와 강습 ...이젠 식상하고 머릿속에 입력도 되지 않는 강좌를 우리시대에 맞게 쉽게 풀어서 강의를 올려 봅니다.

간간히 동영상도 소개 될때면 많은 시간을 두고 이어서 촬영한 것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 목차

|   |                             |    |
|---|-----------------------------|----|
| 1 | 기초 , 중급편 팬플룻 강좌 커리큘럼(수정보완중) | 4  |
| 2 | 팬플룻강좌 # 반음 #                | 5  |
| 3 | 팬플룻강좌 # 팬플룻이야기 #            | 10 |
| 4 | 프레다 홈 페이지                   | 18 |
| 5 | 3000원 품질 좋은 MR싸이트           | 20 |
| 6 | 팬플룻청소에 대해서                  | 22 |

## 기초과정 =====

- 악기구입
- 연주자세-과제(팬플룻역사)
- 악기의 구조 이해(재료별(갈대-대나무-나무....) 모양별(페루식,유럽식))
- 소리내기-팅잉
- 순차진행
- 관이동 - 근음 3도 . 5도 , 1옥타브
- 8분음표 연습, 4분 음표, 2분음표, 온음표, 점음표
- 판이름 한소리 ,슬러, 타이, 셋잇단음표 ,점음표
- 호흡 - 복식호흡, 롱톤, 풀톤
- 당김음, 스타카토, 논레가토 , 더블, 트리플 텅잉
- 고음연습
- 레가토, 포르타토, 데뉴토, 장식음, 글리산도 , 비브라토
- 반음
- 프레이징
- 연습시 갖추어야 할 장비와 어플
- 음악을 팬플룻으로 표현하기

## 중급=====

- 스케일연습
- 호흡비브라토와 핸드비브라토
- 빠른관이동
- 무대연주 매너와자세
- 연습노하우
- 팬플룻 조율 및 청소
- 팬플룻제작업체와 전문연주자들
- 팬플룻곡
-

반음 소리내기

팬플룻은 보통 C-Key 와 G- Key로 연주를 많이 합니다.

악기의 키(C-Key 와 G- Key)구분은 다음 중급 강의에서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고 보통 C-Key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음악에 조금의 깊이가 있는 분들을 위한 강의가 아닌 ----' 나는 오선지에 악보도 볼줄 모른다' 하는 분을 위한 강의 이오니 이해하고 넘어 가시면 됩니다.

악보에 보시면 가끔 #과 ♭ 붙어 있고 어떨때 여러개도 붙어 있는것을 보실 것 입니다.

그 원곡 악보를 그대로 붙여 보려니 너무 어렵기도 하고 해서 보통은 C-Key 와 G- Key로 편곡을 해서 부르기도 하고 처음부터 아예 C-Key 와 G- Key로 원음이 된곡을 선곡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지의 한국인은 그러면 안된다는 것을 6.25 전쟁 이후에 많이 터득해서 #과 ♭가 붙은 곡들도 노력이라는 단어에서 원곡을 붙여 대는 그래서 더욱 원곡의 감정을 느끼려는 강한 의지를 무시하지 못하겠더군요.

하여 #과 ♭가 붙은 곡들 반음을 내 가면서 붙여 보려면 이과정의 꼭 꼭 ----- 정말 ----- 필요 합니다.

어떻게 ?????????????? < =====많은 연습이

팬플룻의 특성상 반음은 높은음을 떨어 뜨려서 연주 하는 주법을 씁니다.

즉 D를 반음 떨어 뜨려서 C#으로 연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의문이 드는것은 C를 높여서 C#으로 하면 안되냐구 질문 하고 싶겠지만 .....이런 질문 하시면 똥구녕에 텅잉 해 버릴겁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C를 높이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잉~~

안된다= C음은 음 높이가 최고피치로 붙어도 C음이 끝입니다. 즉 D에서 떨어 뜨리는것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음내기 강의를 준비 했습니다.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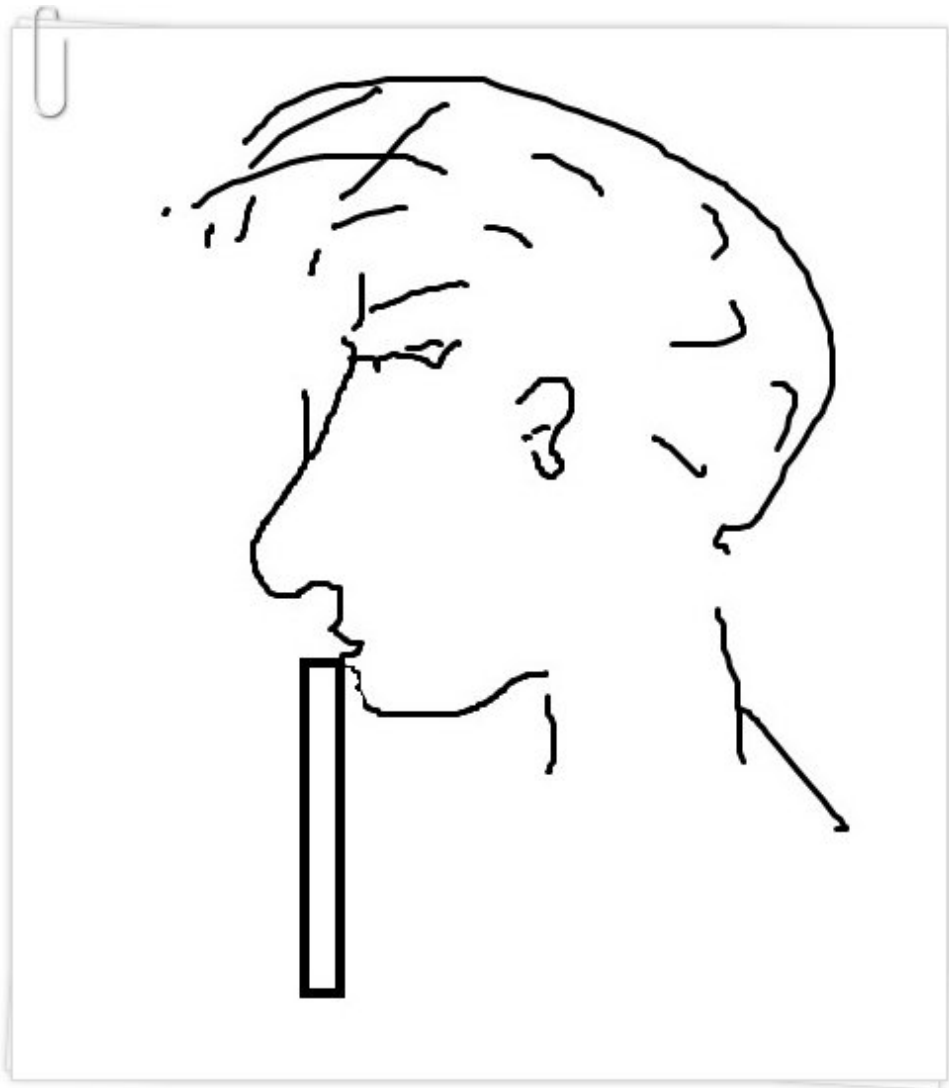
1. 팬플룻깍기
2. 윗입술덮기
3. 아랫턱떨구기

이 세가지 테크닉이 있는데 어떻게 제일 쉽냐면 ..... 3가지 다 졸라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입니까 .....의지의 한국인 아닙니까? ㅎㅎ

졸라 어렵지만 그래도 자꾸 하다 보면 엄청 쉽게 반음 소리 낼수 있습니다. 아마 하루 한시간 연습 기준으로 1주일 정도 걸리지 않습니다.=7시간 연습 하면 감 잡는다는 단순 수치 계산이 나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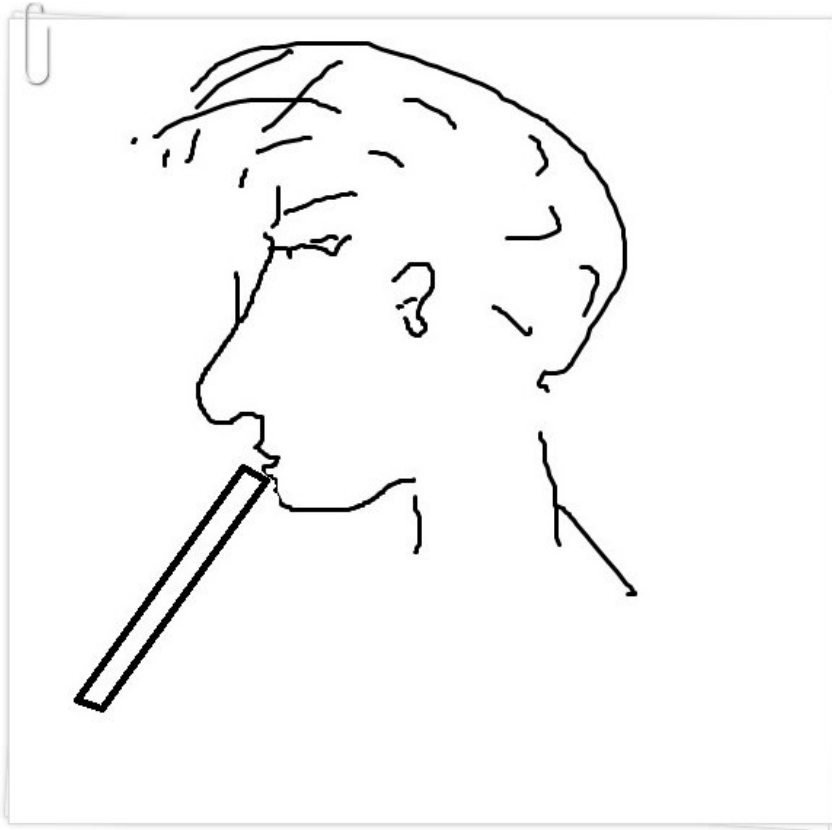
1. 팬플룻깍기 입니다.



보통 팬플룻을 불때에 입술과 직각 으로 부는 모습 입니다.

\*\*\* 그림은 저의 23살때 모습을 크로키한 것 이므로 태클사절 입니다\*\*\* ㅋㅋ

----- 반음을 꺾은 그림 입니다.



관을 아랫 입술로 3/2 정도 덮은 상태에서 팬플룻의 관에서 나오는 공기와 연주자 입에서 나오는 공기가 서로 싸우면서 과성을 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 과성이 관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좀 우울하기도 하고 신비 롭기도 하고 그런 소리를 만들어 냅니다.

이것이 반음 입니다.C 와 D음의 중간음...반음 인 것 입니다. 피아노를 기준으로 하면 검은 검반에 해당 되는 소리인게죠.(C장조 기준)

## 2 입술덮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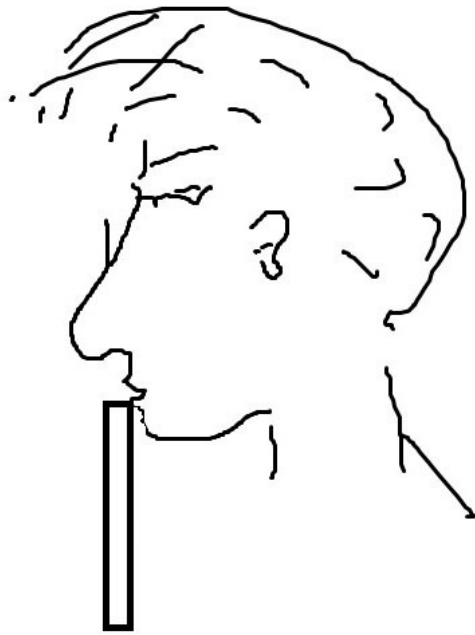
글고 설명 하자만 간단 합니다. 텅잉상태에서 윗입술을 평소보다 더 연주자의 앞쪽으로 내밀고 붙어 보면 음이 떨어 지는것을 느낄 것 입니다.

원리는 똑 같은 관을 3/2정도 덮어 주면서 반음을 만들어 내는것이지요.

이방법은 1번 째기 보다 한 10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꼽니까?.... 의지의 한국인

열심히 연습 하면 3개월 이면 대충 소리 납니다. (1일 1시간 기준)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움직이는 그림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ㅋㅋㅋ



그림이 좀 허접 합니다. ㅎㅎ

### 3. 턱 떨어 뜨리기

이것은 정말 표현 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영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영맘에 안 듭니다. 실물이 정말 나는데 ,,,,

위에 3가지 방법을 설명 드렸는데 아마 충분히 이해가 안되었으리라 봅니다. 되었다면 설명을 무지 잘 하나것이고 이해못했다면 님의 배움 속도가 형편 없는것이기두 하구요. ㅎㅎㅎ

하지만 저 3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믹싱해서 사용하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반응내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으리라 생각 합니다.

1. 꺾으면서 2 .윗입술도 약간 내밀면서 3. 아랫턱은 살짝 당기면서 복합적인 행동이기에 각 파트에서는 3/1씩만 해 줘도 반응이 나아 정상 입니다.

즉 1번 팬플룻 꺾을때 각도가 30도 정도 꺾었다면 ..... 위에 3가지를 복합 적으로 사용해서 반응을 구사 했을때에는 약 15도 정도만 꺾 고 2번의 윗입술 내밀기를 조금 하면서 거기에 아랫턱을 1Cm정도만 당기시면 반응이 툭 떨어 지는 .....명품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 죠.

즐거운 팬플룻질 하세요....

## 팬플룻소개

### 명칭:

팬플루트, 팬파이프, 팬플룻, Panpipe, Panflute 등으로 불리기도 하면서 그리스어로 시린크스(syrinx)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의 관악기이다.

### 역사:

팬플룻의 소리는 매우 곱고 아름답다. 마치 맑은가을하늘처럼 맑고 깨끗하다.

가을 갈대에 흠날리는 모습처럼 하늘거리는 공명소리는 환상적이며 가장 목가적인 분위기를 연출해내는 악기이기도 하다.

형태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원시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기가 수 천년 동안 그 모습이 변화되지 않은 채 전래되어 오고 있는 까닭은 어쩌면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음색을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근래에는 여러 형태의 재료와 제작방식에 의해 다변화가 되고 많은 제작자들이 등장함으로 가격과 품질 면에서도 많은 발전을 하였으며 국내에도 몇 개의 자작업체가 존재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초기에는 8관을 엮어서 불어 오다가 점점 그수가 더해져서 근래에는 30관을 이어만든 악기도 등장했다.

문헌에 의하면 현존하는 유물로서 가장 오래된 것은 기원전 5~6세기 경 북동 이탈리아의 일리리안 홀스탯(Illyrian Halstatt)이라는 유적지에서 발견된 청동향아리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향아리에는 봉헌 의식이나 축제의 만찬같은 그시대 귀족문명의 현상이 음각되어 있으며 거기에 팬플룻과 하프의 합주장면이 나타나 있다.

쓰인 세대는 중국이 앞서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호머'의 서서시 중 '양 떼의 뒤를 갈대를 엮은 피리를 불면서 따라간다'라는 시구를 보아 오래된 Panpipe의 역사를 알려주는 문헌의 자료가 된다.

어원: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목신(牧神)인 팬(PAN)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상반신이 사람이고 하반신은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는 반수신으로 요정 씨링크스(Syrinx)를 몹시 사랑했다.

그러나 씨링크스는 그를 싫어 했으므로 그녀의 아버지인 강의 신에게 부탁해서 자신의 몸을 강가의 갈대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팬은 강가에 나가 갈대를 꺾어 불며 그녀를 그리워 했는데, 이것이 팬플룻의 기원이 것이며 또한 '팬의 피리'라는 의미로서 팬플룻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팬플룻의 소리는 매우 곱고 아름답다. 마치 새벽 이슬처럼 맑고 깨끗하다. 뿐만 아니라 환상적이며 가장 목가적인 분위기를 연출

해내는 악기이기도 하다.

일반:

팬파이프가 근래에 이르러 새로운 관심을 받게 된 것은 70년 초부터이다,

'로스 차코스' 의<SUITE No.2 POLONAISE> (일명 환상의 폴로네이즈), 영화[빌리티스,Bilitis,1977] OST는 우리가 흔히 그 옛날 텔레비전 화면조정시간에 들던 기억이 나게 할 것이다.

'로스 잉카스', '우르밤바'등 '로스차코스' 와 비슷한 타입의 인디오 앙상블이 뒤를 이어 나타나면서 사이먼&가펄클,의 히트곡 엘콘더파사는 팬플룻 음악을 보컬화해서 발표하면서 더 유명해 졌다.

그 무렵 유럽 쪽에서 루마니아 출신의 게오르그 잔피에르(Gheorgh Zamfir)라는 탁월한 연주자가 등장, <외로운 양치기>로 일약에 팬플룻을 세계적인 악기로 승화시켜버린 팬플룻의 종결자가 나타난 것이다.

이후 <여름비>, 그가 작곡하고 연주한 「팬플룻협주곡 제1번 G장조」 활발한 음반 제작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다.



게오르그 잔피에르(Gheorgh Zamfir)

요즘 많이 알고 듣는 이탈리아 영화음악가 Ennio Morricone (엔니오모리꼬네)도 팬플룻을 불면서 작곡에 활용한다는 그래서 그의 음악을

듣다 보면 쉽고 단조로운 음률을 만나게 된다.

이렇듯 팬플룻 음악은 치유 음악으로서 정서상 氣를 충만 시키는 태교음악으로도 많이 활용된다.

이후 많은 연주자들이 유럽과 남미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웬만한 축제나 지하철 역사 등지에서 보면 남미음악그룹의 연주음악을 자주 접하게 된다.

## 팬플룻 종류

재질에 따라 나누면 대나무, 장미목, 흑단, 황동, 카본, 유리관, 도자기, 등등으로 마뉘지만 가장 흔하게 또 기본 소리에 가까운 악기는 대나무로 만든 팬플룻 이라고 생각한다.

▼▼▼▼▼ 알토팬플룻(Alto Panflute)▼▼▼▼▼출처:프레다홈페이지

보통 가장 많이 연주하고 처음 접하기에 적합한 악기이다



▼▼▼▼▼ Tenor 테너25관 황동팬플룻이다. 음색 D1~G4 ▼▼▼▼▼출처:프레다홈페이지

이 악기의 특징은 중간에 관이 황동으로 이루어져 금관악기처럼 고운 소리 공명을 얻을수 있고 취구부분만 대나무를 사용하여 입술에 닿는 대나무의 촉감을 그대로 살린 악기



▼▼▼▼▼Bass Bamboo Panflute▼▼▼▼▼출처:프레다홈페이지

베이스 22관 대나무로 만든 것이다.음색은 G~G 가격은 약 900유로니까 세금전 140만원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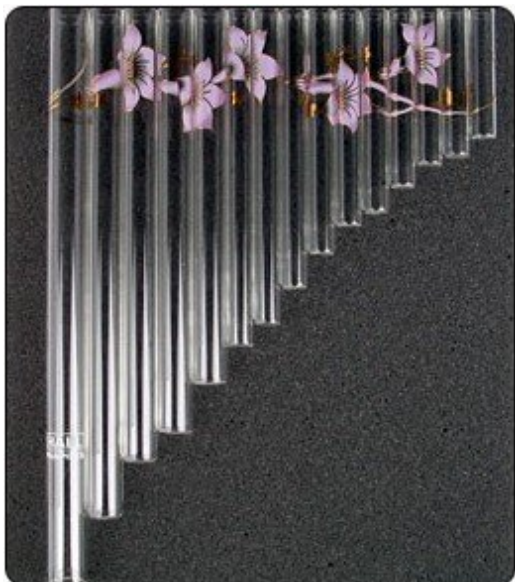


▼▼▼▼▼ Double □ Bass 더블베이스 ▼▼▼▼▼





▼▼▼▼▼ 크리스탈 팬플룻 ▼▼▼▼▼



▼▼▼▼▼ 흑단팬플룻 ▼▼▼▼▼



이밖에도 장미목,카본, 알미늄 등등의 팬플룻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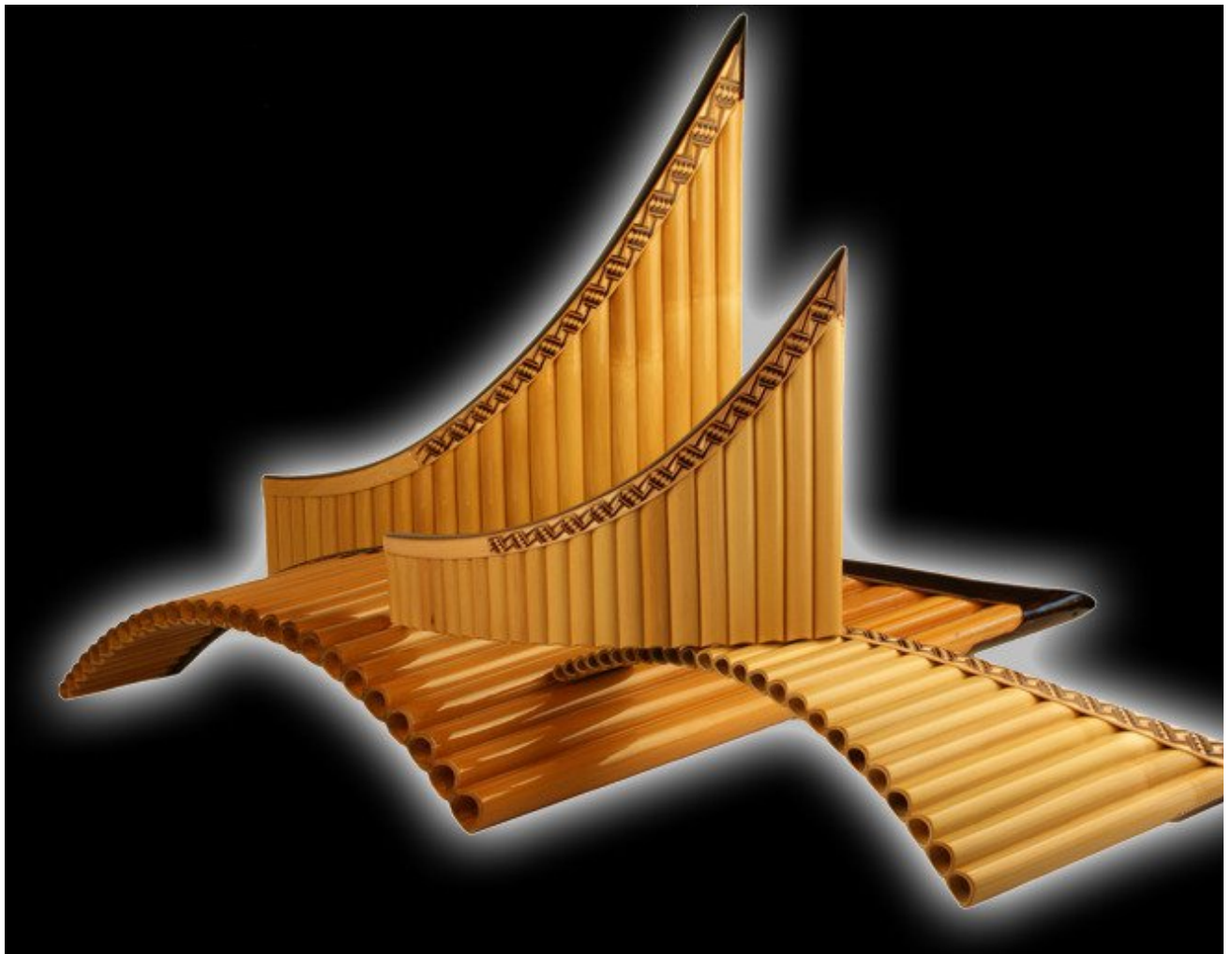
2011/여름 이동원 - 이별노래 연습장면

<http://www.preda-panflute.ro/en/>

팬플룻 제작업체 프레다 홈페이지에서 이것 저것 구경도 하고 하면 시간 가는줄 모를것이다.

쟁쟁한 연주자들 홈페이지도 방문할수 있고 그곳에 우리 나라 팬연합 홈페이지도 링크에 걸려 있다는사실.

직접 주문도 가능하고 유로로 결제 하면 프레다 22관 같은 경우엔 항공료 80유로+ 500유로(팬플룻가격)+조율비 +세관통관비 해서 약 100만원 가까이 할듯 .....잘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될듯 하다.



사진출처:프레다홈페이지

<http://www.preda-panflute.ro/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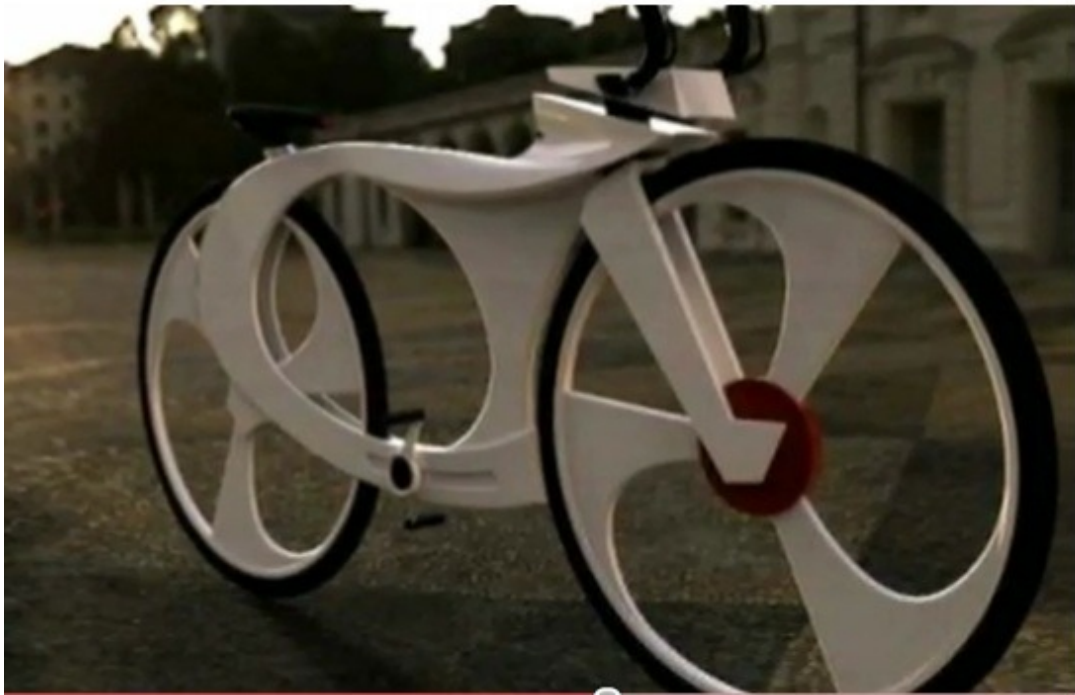
<http://www.catmusic.co.kr/> MR퀄리티가 그래도 개안 한곳 추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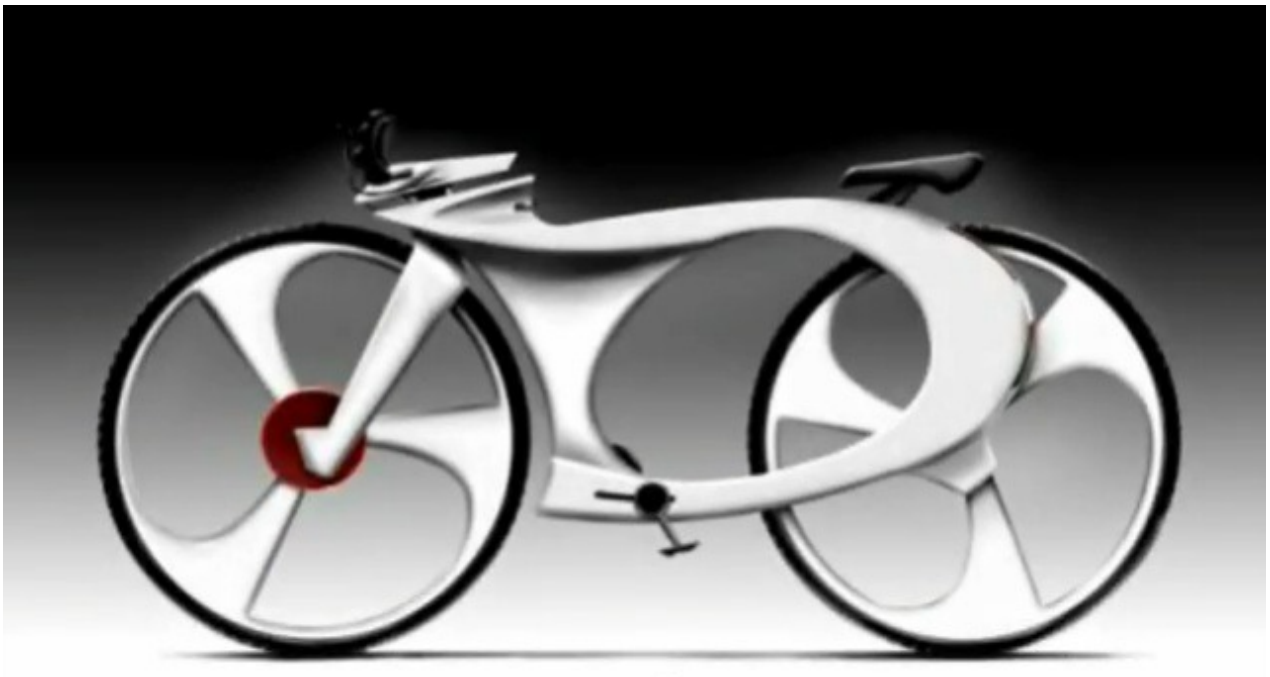
오바바두 팬플룻 부네요



내 사진 이네요



이거 잔차네요... 새로운 디자인이라서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만들면 근사 하겠지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장 팬플룻질 하기에 좋은 계절이 가을이 아닐까 합니다.

적당한 습기와 온도 그리고 계절의 느낌이 가을과 예술... 그 중에서도 음악과 팬플룻 ..... 그 중에서도 갈대와 팬플룻  
뭐 이런 생각 하시다 보면 이때쯤엔 음악 한국 듣자구요.

이 좋은 곡을 들으면서 팬플룻 청소를 해봅시다.

약국에 가시면 이런 소독용 알코올을 판매 할것 입니다. 약 1,000원~1,500원 하나 암튼 구입을 합니다.



<http://blog.daum.net/goldwing5425>

주변에 긴 막대기 (전 튀김젓가락을사용)를 하나 구해서 부드러운 꺼즈나 용 같은 종류의 천을 끝부분에 감거나 고정을 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용을 감아서 무명실로 칭칭 감아서 사용했습니다.

=== 신경쓰실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여름철에는 자주청소를 해 주셔야 곰팡이가 생기지 않으며 가을과 겨울철에도 상대적으로 곰팡이가 덜 생기긴 합니다.

보관가방에 제습기로 유명한 실리카겔-- 뭐 이런 종류랑 같이 보관하기도 합니다만 .

매일연습기준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청소를 해 주셔야 상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오래동안 안해두 무방 합니다.....사실은 저두 일주일에 한번은 못하구 보름에 한번은 합니다.ㅋㅋㅋ 위생적인척 해 보았습니다.어떨때 내 취구에서 나의 냄새를 느낀적두 있었습니다. 아 용서못할 역겨움에 그담부터 자주 하긴 합니다))))

- 에탄올이기 때문에 청소후에는 충분한 건조를 하시구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인체에 무해한 에탄올인지 잘 모릅니다. 다만 청소 하고 바로 붙었을때 느끼는 기분은 별루 였거든요.그러니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 밀랍으로 된 악기는 약간 주의를 요합니다.

밀랍으로 밀봉된 악기는 너무 많은 에탄올이 구멍에 흘러 들어 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 입니다.

밀랍이 약간 녹는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녹아서 없어 진다는 것은 조율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결과...아시죠?

암튼 조율도 자주 해 보면 금방 익숙해 집니다. 어차피 자기 악기를 만지고 보듬어 주는것은 악기 주인의 정성 이다고 생각하니까요.

====>>>>> 다음엔 악기조율에 대해서

## 팬플룻 12주 완성

블로그 Column of 丹夜 <http://blog.daum.net/goldwing5425>

저자 丹 夜(김병의)

발행일 2011.10.05 18:48:32

 블로그